

첫째 자녀 출산과 양육 시기 동안의 여성의 결혼만족도 유형화 연구*

조보배**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자녀 출산 후 첫째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기까지 여성의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수들이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여성가족패널 1차(2017년)에서 8차(2020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49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첫째 자녀 출산 이전의 시점부터 첫째 자녀를 출산 후 8~9년까지 총 6개 시점의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변수로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총 4개의 상이한 변화궤적이 도출되었다. 주된 변화 양상으로는, 첫째 자녀 출산 이후 대부분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하락하며 첫째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점까지 하락한 양상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3%에 해당하는 소수의 여성은 첫째 자녀 출산 이후 결혼만족도가 출산 전보다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다른 유형의 여성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양상의 차이와 관련된 유의한 변수로는 배우자의 학력, 배우자 무급노동 시간, 배우자와의 관계적 측면(배우자 소통, 신뢰의 정도)으로 확인된다. 이에 배우자의 학력에 따른 부부 관계와 여성의 결혼 만족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공교육 단계에서 평등한 성역할과 결혼생활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소통을 위해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 환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여성 결혼만족도, 첫째 자녀 출산, 유형화, 집단중심추세분석,
여성가족패널조사

* 본 연구는 2022년 여성가족패널학술대회 논문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bobaejo@kihasa.re.kr)

I. 들어가며

결혼만족도는 결혼의 질에 대해 부부가 가지는 주관적인 평가로(Fincham, 1998; 서미정, 2018: 32에서 재인용), 결혼에 대한 개인이 가지는 전반적인 감정은 부부의 심리적 만족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Fincham, 1998; Robinson & Neece, 2015; 김연하, 2016: 48에서 재인용) 매우 중요하다. 결혼이 정서적 관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현대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만족도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건인데,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이혼 의도가 결혼만족감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김영희, 2005),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의 양육 태도나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Fincham, 1998) 양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만족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부부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한다. 부부는 생애 걸쳐 긴 시간 동안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감당하며, 서로와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기대를 하게된다.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결정되기 때문에(이여봉, 2010: 103-104) 이들의 결혼 주기에서 직면하는 생애 사건과 함께 이를 대처하는 방식 즉 본인과 배우자의 태도 및 정서적 교류, 외부의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며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은 신혼기와 자녀 출산기를 거쳐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하락하다가, 이후 자녀의 학령기, 성인기를 거쳐 다시 상승하는 U자 형태로 나타나거나(Atchley, 1992; Berry & Williams, 1987; Rollins & Cannon, 1974; Rollins & Feldman, 1970; 이여봉, 2010: 105에서 재인용), 결혼 이후 결혼만족도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중년기 이후에 하락한 양상이 회복되지 않고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Blood & Wolfe, 1960; 이여봉, 2010: 105에서 재인용). 중년기 이후 반등하든 혹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든 기존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결혼 이후 신혼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의 결혼만족도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부부의 생애주기 중 ‘첫째 자녀의 출산’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애 사건이다. 첫째 자녀 출산은 부부 중심의 관계에서 자녀를 포함한 새로운 가족 체계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¹⁾이며(LeMasters, 1957;

1) LeMasters (1957)는 하나의 작은 체계로서의 가족(family)을 바라보았으며, 이러한 체

Kluwer, 2010), 결혼 이후 부모기로 전이한 부부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는 시기이다. 첫째 자녀 출산은 부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줄임으로써 부부의 결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옥선화·고선주, 1993), 특히 상당 부분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책임으로 부여되어 출산과 자녀 양육기의 사회적 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환경 등 제반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Belsky, Lang, & Huston, 1986; Hackel & Ruble, 1992; Ruble et al., 1988)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결혼 적응 양상이 다를 수 있다(옥선화·고선주, 1993). 기존 연구들은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남성들보다 낮으며 특히 첫째 자녀 출산 이후 결혼만족도가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언급한다(김연하, 2016; 서미정, 2018). 즉 첫째 자녀 출산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부에서 부모로의 역할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지만, 부모역할로 인한 제반의 환경적 신체적 변화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부모의 성별에 따라서도 변화 양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이들이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하는 시점까지의 결혼만족도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첫째 자녀 출산이 모든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까? Kluwer, E. S. (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 전이되는 시기에 이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와 함께 개인과 상황적 여건에 따라, 일부 부부들은 다른 부부와 다르게 이러한 과정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언급한다. 부부 간의 관계에서 자녀를 포함한 새로운 가족 체계로의 확장 및 어린 자녀와의 유대와 애착, 자녀 출산을 통한 관계의 안정성, 재생산의 필요와 사회적 기대에 충족했다는 인식 등(Petch & Halford, 2008)은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으며, 특히 새로운 부모의 역할에서 있어 배우자의 양육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시 여성의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미정, 2011). 배우자의 양육 참여는 출산 시점 뿐만 아니라 이후의 자녀 양육기의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변화하는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서미정, 2018). 즉 전체적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기에 결혼만족도가 하락하는 양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출산 이후에도 결혼만족도의 큰 변화 없이 유지되거나, 혹은 오히려 출산이라는 경험과 이에 대응하는 양상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결혼만족도가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²⁾. 동일한 생애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에

계에서 새로운 가족구성이 추가되는 첫째 자녀 출산의 경험은, 이러한 체계를 극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논하였다.

대처할 수 있는 가족 내외의 자원과 부부간의 협력, 배우자의 조력에 따라 이것이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이를 더 높이는 기회의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자녀 출산 이후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국내의 초창기 연구(김미령, 2009; 이여봉, 2010)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첫째 자녀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을 중심으로 개인의 결혼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양상을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종단면 자료를 이용한 최근의 연구(김연하, 2016; 서미정, 2018)에서는 주로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출산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으나, 이들 연구 역시 자녀 출산이 결혼만족도를 낮출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개인들 간의 차이(출산 시점에서 개인 간의 결혼만족도의 차이, 이후 하락하는 양상(기울기)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는 첫째 자녀 출산이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하지만, 이는 모든 개인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존 양적 연구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어떻게 변화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화 양상 자체를 유형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는 단순히 가족 내의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적 지원(친인척 돌봄지원, 돌봄서비스 등)과 함께 이후의 경험하는 추가 자녀 출산³⁾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조부모와 같은 친인척의 돌봄 지원⁴⁾이나 외부 돌봄서비스의 이용은 여성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들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배우자가 가사노동이나 자녀돌봄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⁵⁾, 여성이 출산과 양육기에도 경

2) Belsky & Kelly(1994)는 임신기와 출산 후 9개월 시점에서의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의 부부는 결혼의 질의 완만한(38%), 혹은 심각한(13%) 하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수의 부부(30%)는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19%)는 오히려 이들의 관계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 출산은 양육과 관련된 시간적·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해서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이여봉, 2010: 108) 여성들의 결혼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연하(2016)의 연구에서도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출산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친인척과의 활동공유로 김미령(2009)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시댁가족, 남편과 친정가족과의 활동공유가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녀출산과 양육기에 친인척을 통한 돌봄 지원 등은 여성들의 양육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 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제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는지⁶⁾, 가구소득이나 부부의 학력수준⁷⁾, 여성의 성역할 태도 등은 첫째 자녀 출산과 육아기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후자의 중단연구(김연하, 2016; 서미정, 2018)에서는 이러한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봄에 있어 외부의 돌봄지원(친인척 돌봄 지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첫째 자녀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들 간의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은 어떠한 요인과 관련되는가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의 1차년도(2007년)부터 8차년도(2020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첫 번째 질문인 첫째 자녀 출산 이후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 분석(Group-based Trajectory)을 통해 여성들의 결혼만족도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며, 두 번째 질문인 이러한 상이한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탐색하기 위해 첫 번째 유형화 분석의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생애사적 사건에 있어 여성들의 부부 관계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되며, 이것이 어떠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제도적 지원 대상과 지원 방향에 있어 구체적인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 5)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을 유형화한 조보배(2022)의 연구에서 사실상 여성이 대부분의 무급노동을 전담하는 가구의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적 평등하게 무급노동과 시장노동시간을 배분하는 여성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나 가사분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우자의 무급노동 참여정도는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6) 여성의 경제 활동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관해서는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거나,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여성들의 이중역할(경제활동, 무급노동)로 인해 오히려 부부 갈등이 커져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며(Voydanoff, 1988; 한경미, 1995; Kessler & McRae, 1982; 이여봉, 2010: 106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이 완화된 양 배우자가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가사와 육아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는 부부간의 이해를 높이기 때문에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다(이은희, 2002; 조성은·정지영·윤소영, 2006). 한편 서미정(2018)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은 첫째 자녀 출산이후 '남성'들의 결혼만족도가 하락하는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아닌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 7)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결혼생활의 갈등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부부는 보다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박은옥, 2001)

II. 연구 질문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연구 질문1] 첫째 자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결혼 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 여성의 결혼만족도 변화 양상의 차이(유형 간 차이)는 어떠한 요인과 관련 있는가?

1. 분석 자료 및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1차년도(2007년)부터 8차년도(2020년)까지의 개인, 출산력, 직업력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시기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으로 이들이 첫째 자녀를 출산하기 1, 2년 전부터 첫째 자녀를 출산한 후 8, 9년 시점까지의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출산 경험 이전부터 첫째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점까지의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인, 첫째 자녀 출산 이후 첫째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하는 시점까지의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기 위해, ‘첫째 자녀 출산’을 경험한 여성으로 대상을 한정하는데, 출산력 자료를 이용해 첫째 자녀를 출산한 시점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여성으로 한정한다. <표 1>은 첫째 자녀 출산한 해를 기준으로 분석에 포함된 조사 차수를 재배열한 것이다. 여성가족패널은 2007년(1차)부터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6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이들 여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하기 1, 2년 전의 결혼만족도의 자료가 없으며, 이들 여성의 1차(2007년)조사 시의 결혼만족도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해를 기준으로 1년 후 시점의 결혼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들 여성의 5차(2014년)조사 시의 결혼만족도는 첫째 자녀 출산 후 8년이 되는 시점으로 첫째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한 후의 결혼 만족도가 된다. 한편 2014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4차 조사(2012년) 시의 결혼만족도의 경우 첫째 자녀를 출산하기 2년 전의 결혼만족도 값이 되며, 5차 조사(2014년)의 결혼만족도는 이들 여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해의 결혼 만족도, 8차 조사(2020년)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결혼만족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본 분석에서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 시점을 재배열하였으며(참고 <표 1>), 전체 6개의 시점⁸⁾ 중 4개 이상의 시점에서 결혼만족도를 응답한 여성 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⁹⁾. 분석에는 총 499명의 여성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결혼만족도는 김미령(2009)과 이여봉(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요즘 결혼생활에 대한 너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 주십시오’ 조사한 응답 문항을 사용하는데, 여성가족패널의 결혼만족도 문항은 3차 년도 조사까지 이를 7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4차 년도 조사부터는 이를 10점 척도로 조사하여, 이를 100점으로 환산한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¹⁰⁾

〈표 1〉 첫째 자녀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 포함된 조사 차수

| 첫째 출산 | 첫째 출산 1~2년 전 | 첫째 출산 당해~1년후 | 첫째 출산 2~3년 후 | 첫째 출산 4~5년 후 | 첫째 출산 6~7년 후 | 첫째 출산 8~9년 후 |
|-------|-----------------|-----------------|-----------------|-----------------|-----------------|-----------------|
| 2006 | | 1차(2007년) | 2차(2008년) | 3차(2010년) | 4차(2012년) | 5차(2014년) |
| 2007 | | 2차(2008년) | 3차(2010년) | 4차(2012년) | 5차(2014년) | 6차(2016년) |
| 2008 | 1차(2007년) | 2차(2008년) | 3차(2010년) | 4차(2012년) | 5차(2014년) | 6차(2016년) |
| 2009 | 2차(2008년) | 3차(2010년) | 4차(2012년) | 5차(2014년) | 6차(2016년) | 7차(2018년) |
| 2010 | 2차(2008년) | 3차(2010년) | 4차(2012년) | 5차(2014년) | 6차(2016년) | 7차(2018년) |

8) 구체적으로 6개 시점은 ① 첫째 자녀를 출산한 1,2년 전, ② 첫째 자녀를 출산한 해 또는 1년 후, ③ 첫째 자녀를 출산 2,3년 후, ④ 첫째자녀를 출산 4,5년 후, ⑤ 첫째자녀를 출산 6,7년 후, ⑥ 첫째자녀를 출산 8,9년 후 이다.

9) 한편 일부 대상자의 경우 첫째 자녀를 출산한 해에 결혼을 한 경우도 있다. 이들의 경우 첫째 자녀 출산 1,2년 전의 결혼 만족도 값이 없으며 해당 시점의 값은 결측치로 처리된다. 또한 2006년, 2007년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여성가족패널 조사가 2007년(1차)부터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째 자녀출산 1,2년 이전 시점에서의 결혼 만족도 값이 조사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전체 6개의 시점에서 4개 이상의 시점에 응답한 여성만이 분석에 포함하였다.

10) 한편 여성가족패널자료를 사용한 이여봉(2010)은 결혼만족도를 1)관계 만족도와 2)결혼행복도로 측정된 두 변수를 가지고 결혼만족도를 개념화하는데, 구체적으로 1)관계만족도는 배우자와의 대화, 견해 일치성, 부부생활만족도, 배우자 신뢰도의 4개의 문항을 관계만족도로 보았으며, 결혼행복도는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을 묻는 단일 문항(7점 척도)을 사용하였다. 반면, 김미령(2009)의 연구에서는 이여봉(2010)의 연구에서의 1)관계만족도 지표를 결혼만족도를 결정짓는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김미령(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이는 결혼만족도라는 개념이 배우자와의 관계적 측면(배우자에 대한 신뢰, 소통, 견해, 성생활만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적 측면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첫째 출산 | 첫째 출산 1~2년 전 | 첫째 출산 당해~1년후 | 첫째 출산 2~3년 후 | 첫째 출산 4~5년 후 | 첫째 출산 6~7년 후 | 첫째 출산 8~9년 후 |
|----------|-----------------|-----------------|-----------------|-----------------|-----------------|-----------------|
| 2011 | 3차(2010년) | 4차(2012년) | 5차(2014년) | 6차(2016년) | 7차(2018년) | 8차(2020년) |
| 2012 | 3차(2010년) | 4차(2012년) | 5차(2014년) | 6차(2016년) | 7차(2018년) | 8차(2020년) |
| 2013 | 4차(2012년) | 5차(2014년) | 6차(2016년) | 7차(2018년) | 8차(2020년) | |
| 2014 | 4차(2012년) | 5차(2014년) | 6차(2016년) | 7차(2018년) | 8차(2020년) | |

주: 위의 시기 구분은 첫째 자녀를 출산한 해를 기준으로 연 단위로 자료의 시점을 재배열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2차(2008년) 시점의 결혼만족도는 첫째 자녀 출산 후 1년으로 포함되며, 3차(2010)년의 결혼만족도는 첫째자녀 출산후 3년후로 분석시점에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 첫째 자녀를 출산한 날짜와 조사 시점까지를 고려하는 경우 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첫째 자녀를 2017년 1월에 출산하였고, 해당 3차 년도의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조사된 시점이 2018년 12월인 경우 1년이 경과 결혼만족도라는 점에서 정확한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인 유형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변수들을 포함하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참고<표 2>). 이에 앞서 살펴본 유형이 종속변수가 되며, 독립변수로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인 학력, 배우자 학력, 출산한 자녀의 수, 가구소득, 본인의 성 역할태도, 배우자 무급노동 시간(절대적 시간, 상대적 시간), 배우자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견해 일치성, 부부생활(성관계)만족도, 배우자 신뢰도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포함된 변수는 <표 2>에 작성되어 있다.

이들 변수 중 가구 소득이나 추가 가사 돌봄자의 여부, 배우자 무급노동시간 등은 시점에 따라 변하는 변수이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를 출산하기 전 여성이 함께 경제활동을 한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이 높다가 이후 첫째자녀를 출산하는 시점에서 노동시장에 이탈한 경우 가구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어느 시점의 가구 소득값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해당 변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앞선 사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역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본 분석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들의 경우 전체 관찰 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시점은 <표 2>의 변수의 정의에 함께 기술하였다.

〈표 2〉 변수의 정의

| 변수명 | 변수설명 |
|----------------|--------------------------------------------------------------------------------------------------------------------------------------------------------------------------------------------------------------------------------------------------|
| 결혼 만족도 | 요즘 결혼생활에 대한 남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 주십시오' 7점척도 또는 10점 척도로 응답한 값을100점으로 환산한 값. 100점에 가까운 점수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
| 본인/ 배우자 학력 | 1: 고졸이하 2: 2/3년제 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4: 대학원 졸업 * 최근 조사 시점에서의 학력을 기준으로 함. |
| 본인 성역할 태도 | 아래의 문항(4점 척도)을 합산한 값으로, 관찰 기간 전체 평균 값 사용. ¹¹⁾ 높은 점수일수록 성평등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①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②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③ 주부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 관계가 평등해진다. ④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
| 자녀의 수 | 마지막 관찰 기간까지 출산한 총 자녀의 수 |
| 가구 균등화 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기준 ¹²⁾ 으로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소득 ¹³⁾ 2020년 기준 실질소득으로 환산한 값 ¹⁴⁾ 을 사용함. * 관찰 기간 전체 가구소득의 평균 |
| 첫째 자녀 출산 연령 | 첫째 자녀 출산 당시 여성의 (만) 연령 |
| 가사노동 지원자 | 첫째 자녀 출산 이후 마지막 조사 시점까지의 (배우자 외)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의 평균 값 |
| 배우자 절대적 무급노동시간 | 하루 평균 무급 노동시간 배우자 무급노동시간 ¹⁵⁾ =배우자 가사노동시간+배우자 자녀돌봄시간 * 첫째 자녀 출산 이후의 시점의 무급노동 시간을 분석에 포함함. |
| 배우자 상대적 무급노동시간 | 여성의 무급노동시간 대비 배우자의 무급노동시간의 비중 배우자 무급노동시간/(본인 무급노동시간+배우자 무급노동시간) * 첫째 자녀 출산 이후 시점의 무급노동 시간을 분석에 포함함. |
| 여성 경제활동 참여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경제활동참여기간/관찰기간)*100 *관찰 기간 ¹⁶⁾ 중 경제 활동에 참여한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
| 배우자와의 대화 |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4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 4점에 가까울수록 배우자와 대화를 많이 한다고 판단함. * 관찰기간 전체의 평균값을 사용함. |
| 배우자와의 견해 일치성 |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4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 4점에 가까울수록 배우자와 견해가 일치하는 판단함. * 관찰기간 전체의 평균값을 사용함. |
| 부부생활 (성관계) 만족도 |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 4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 4점에 가까울수록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함. * 관찰기간 전체의 평균값을 사용함. |
| 배우자 신뢰도 |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 4점 척도로 측정된 측정된 문항. 4점에 가까울수록 배우자를 신뢰한다고 생각함. * 관찰기간 전체의 평균값을 사용함. |
| 첫째 자녀 출산한 해 | 첫째 자녀를 출산한 해 |

- 11) 7차(2018년)조사부터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문항을 추가하여 가족 내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전 조사에서는 해당 문항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문항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 12) 소득 중 가구의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역시 가구 소득의 중요한 부분이나,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의 경우 일시적인 매대로 인해 높은 값(예를 들면 6천만 원, 1억 원 등 이 포함 됨)등 비정기적 소득이 포함되어 이를 제외하였으며, 공적이전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6차년도 이후부터 조사에 포함되어, 이전 조사 자료에서 이를 포함할 수 없어 이를 제외하였다.
- 13) 가구 균등화 소득 산출 시 소득의 경우 작년 한 해의 소득을 조사하고 있으나 가구원 수는 조사시점에서의 가구원 수를 조사하고 있어 소득 시점(조사 전년도 시점)과 가구원 수(조사당해)의 시점이 상이하다. 1년 단위로 조사되는 패널자료의 경우 전년도 조사 시점에서의 가구원 수를 적용하여 가구소득의 조사시점과 가구원수의 조사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으나,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2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이에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가구원 수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전년도 소득에 조사 당해연도의 가구원 수를 적용하여 가구균등화 소득을 산출하였다.
- 14) 여성가족패널에서는 작년 한 해 소득을 질문하고 있다. 이에 2007년(1차) 조사의 경우 2006년 소득이다. 이에 2007년 조사에 포함된 소득 값은 2006년 한해 소득값으로 2020년 기준 2006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76.1로 해당 값을 적용하여 실질소득으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 소득값에는 78.0, 2009년 83.9, 2011년 89.9, 2013년 93.0, 2015년 94.9, 2017년 97.6, 2019년 99.5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였다(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 15) 배우자의 무급노동 시간은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시간을 합산한 값인데, 배우자 자녀돌봄 시간의 경우 4차년도(2012년) 자료부터 조사되어, 4차년도 자료부터의 무급 노동시간을 포함했으나, 사실상 실제 자녀를 출산하는 시점에서의 배우자의 돌봄 노동참여가 많다는 점에서, 1,2,3차의 배우자의 무급노동시간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연도를 통제변수로 함께 포함하였다. 무급노동시간은 첫째자녀를 출산한 해 부터의 값을 분석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돌봄 시간이 0으로 나오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자녀출산을 기점으로 자녀 돌봄을 포함한 무급노동에 대한 시간의 할애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부부가 이를 어떻게 배분하고 배우자가 얼마를 참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16) 관찰기간은 출산한 전해의 1년부터 분석에 포함된 마지막 년도의 12월 까지를 관찰기간으로 설정했으며, 해당 기간 중 여성들이 얼마나 경제활동에 참여했는지를 월 단위로 나타낸 값이다. 관찰기간은 구체적으로 2006년 출산한 여성의 경우 2005년 1월~14년 12월, 2007년 출산한 여성의 경우 2006년 1월~16년 12월, 2008년 출산한 여성이 경우 2007년 1월~16년 12월, 2009년과 2010년 출산한 여성의 경우 2008년 1월~18년 12월, 2011년과 2012년에 출산한 여성의 경우 2010년 1월~20년 12월, 2013년과 2014년 출산한 여성의 경우 2012년 1월-20년 12월이며, 예를 들어 2006년에 출산한 여성이 2006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가 2008년 5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후에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일을 한 경우, 전체 관찰기간 중 경제활동을 한 개월은 전체 관찰 기간인 120개월 중 23개월로 $(23/120) \times 100 = 19.17$ 이다.

2. 분석 방법

연구 질문인 결혼만족도 변화양상을 유형화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 분석을 실시하며, 집단별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다. 다항 로지스틱(multinomial logistic) 분석은 종속변수가 범주형 자료이면서, 3개 이상의 집단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 이미 잘 알려진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집단 중심추세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사회과학에서 생애사(Life course)의 연구에서 ‘추세’라는 개념은 핵심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추세’ 적절하게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다(민현주, 2012: 69). 이 방법은 Nagin 외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분석 방법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분석대상의 고유한 추세를 추적하고 유형화한다(민현주, 2012). 집단중심추세방법은 시간에 따른 행동유형을 군집으로 분류하며, 각 집단의 변화 양상의 형태를 추정하고, 집단수와 자료와의 최적의 적합도를 갖는 집단 수를 검증하는 방법이다(민현주, 2012: 70). 집단중심추세방법에서는 최대우도법(method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각 집단 추세와 각 집단에서의 사례 수의 비율을 추정한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은 개인 i 의 종속변수에 대해 가지는 우도(likelihood) $P^j(Y_i)$ 는 특정 개인인 i 가 주어진 집단인 j 에 속할 확률을 의미하며, π_j 는 집단 j 의 확률을 의미한다.

$$P(Y_i) = \sum_{j=1}^J \pi_j P^j(Y_i) \quad (1)$$

각 개인이 특정 집단 j 에 속할 확률은 측정시점마다 상호독립적이라고 가정하는데, 이에 식 (2)와 같이 개인이 한 집단에 속할 확률은 각 시점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김사현 외, 2021: 18).

$$P^j(Y_i) = \prod P^j(y) \quad (2)$$

아래의 식(3)에서 k 는 분석에 활용된 집단의 수이며, $f(*)$ 는 각 결과변수에 대한 집단별 분포함수를 의미한다. 종속변수의 속성에 따라 다른 확률분포를 가정하며 확률을 추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종속변수(결혼만족도)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절단정규분포(censored normal distribution)

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Jones, Nagin, & Roeder, 2001; 김사현 외, 2021: 18에서 재인용).

$$P(Y_1, Y_2, \dots, Y_k) = \sum_j \pi_j \prod_k f_k^j(Y_k) \quad (3)$$

본 연구에서의 조사 시점은 총 6개 이므로 시간 함수는 3차 함수로 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아래의 식(4)으로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y^{*i} = \beta_0^j + \beta_1^j Time + \beta_2^j Time^2 + \beta_3^j Time^3 + \epsilon \quad (4)$$

다음으로 개인들의 추세를 가장 잘 묘사하는 최종모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활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통계치이다. BIC값의 절대값이 0에 가까운 음수일수록 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BIC 통계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최소 집단의 비중이나 유형화의 결과가 얼마나 연구적 함의를 가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단 수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을 개발한 Nagin et al.(2018)은 모델 선택이 단순히 적합도 통계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이론 및 현실적 관심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한다(김사현 외, 2021: 19).

집단중심 추세 모형은, 노동시장 참여와 같이 발생 횟수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심리 척도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집단중심 추세 모형을 적용한 연구로는 기혼여성의 출산 시점을 기점으로 이들의 노동 참여 경로를 살펴본 민현주(2012)의 연구가 있으며, 복지 태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김사현 외(2021)의 연구 등이 있다.

III.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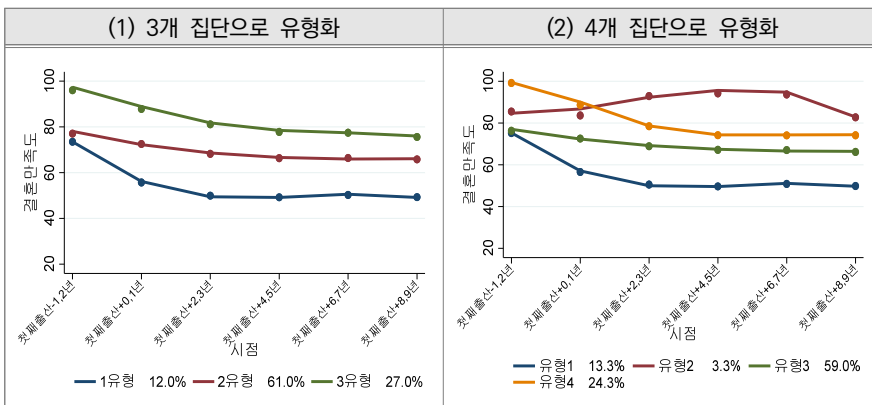
1. 결혼만족도의 변화양상 유형화: 집단중심추세분석

먼저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유형화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은 유형화 수 별로 BIC, AIC, LL, 최소 집단의 비율, 최소 집단의 사례 수를 보여준다. BIC값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경우 전체의 3.21%(N=16)를 차지하는 유형이 도출되는데, 해당 유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례 수가 매우 작다는 점에서 4개의 유형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해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경우와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경우의 차이를 살펴보면,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경우 전반적으로 초기값 즉 첫째 출산 이전의 여성의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3개의 유형 모두 전체적으로 출산 이후 결혼만족도가 하락하는 양상인 것을 볼 수 있으며(참고 [그림 1]),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경우 첫째 자녀 출산 이후 오히려 결혼만족도가 반등하는 유형이 추가로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추가 유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례 수가 많지 않으나 이들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집단으로 여성의 결혼만족도 변화 양상을 유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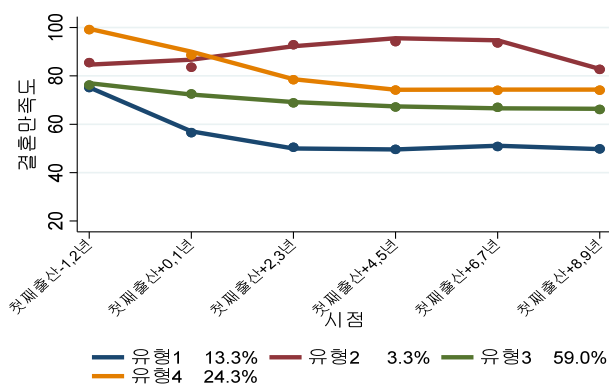
〈표 3〉 모형적합도 기준

| 유형수 | BIC | AIC | LL | 최소 집단의 사례수 | 최소 집단의 사례 비중 |
|-----|-----------|-----------|-----------|------------|--------------|
| 1 | -10037.26 | -10026.73 | -10021.73 | 499 | 100% |
| 2 | -9946.61 | -9925.55 | -9915.55 | 237 | 47.49% |
| 3 | -9931.85 | -9900.25 | -9885.25 | 54 | 10.82% |
| 4 | -9929.73 | -9887.61 | -9867.61 | 16 | 3.21% |
| 5 | -9936.42 | -9883.76 | -9858.76 | 16 | 3.21% |



[그림 1] 유형화 결과 비교(3개 집단 대비 4개 집단)

여성의 결혼만족도 변화궤적을 4개로 유형한 결과를 기준으로 첫 번째 연구 질문인 ‘첫째 자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결혼 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3(전체의 59%)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자녀 출산 이후 결혼만족도가 하락하는 양상이나 다른 유형에 비하여 첫째 자녀 출산이라는 경험이 결혼만족도를 급격하게 낮추기보다는 비교적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4(전체의 23.3%) 유형1(전체의 13.3%)의 변화 양상을 보면 처음 시작점(첫째 자녀 출산 이전의 결혼만족도)에는 차이는 있지만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며 낮아진 추세가 자녀가 학령기에 이르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유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유형1, 유형3, 유형4의 비중의 합산한 값)이 96.7%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첫째 자녀의 출산 경험 이후 결혼만족도가 떨어지며 이러한 양상은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점까지 회복되지 않는다고 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유형1의 변화 양상인데, 이들 여성은 첫째 자녀 출산 이전에는 유형3과 비슷한 수준의 결혼만족도를 보이지만 자녀 출산이라는 사건이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크게 하락시키며 다른 유형의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출산 이전과 이후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결혼만족도가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점이다.



[그림 2] 유형별 여성 결혼만족도의 변화궤적

한편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여성들(유형2, 3.3%)의 경우 오히려 첫째 자녀 출산이후 오히려 출산 이전보다 결혼만족도가 완만하게 상승하며 이후 다시 하락하기는 하나 다른 유형의 여성들보다 더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는 집

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적은 규모이나 출산 이후 자녀 양육기에 결혼만족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집단이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여성들의 결혼만족도 변화 양상을 첫째자녀 출산 전의 초기값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바탕으로 각 유형의 명칭을 정하면, 유형1의 경우 저-급격한 하락(13.3%), 유형2의 경우 중-상승(3.3%), 유형3의 경우 저-완만한 하락(59.0%), 유형4는 고-급격한 하락(24.3%)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의 차이는 어떠한 요인과 관련되는가?

2.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여성의 결혼만족도 변화양상의 유형화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먼저 유형별 여성의 개인 특성과 가구 특성을 살펴본다. <표 4>는 유형별 여성 개인의 특성 혹은 가구(배우자)에 관한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기초통계이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유형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학력, 출산 자녀의 수, 배우자의 절대적 무급 노동시간, 배우자의 상대적 무급노동 시간,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 연령, 배우자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견해 일치성, 부부생활(성관계)만족도, 배우자 신뢰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학력 수준에 있어 저-급격한 하락 유형(유형1)의 여성 배우자의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중-상승 유형(유형2)의 배우자의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출산 자녀의 수는 평균적으로는 중-상승 유형(유형2)의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후 분석 결과 고-급격한 하락(유형4)의 자녀 수만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⁷⁾, 배우자의 절대적 가사노동시간과 상대적 가사노동시간의 비중에 있어서도 중-상승 유형(유형2)에 속하는 여성의 배우자의 무급 노동 참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배우자와의 대화나 배우자와의 견해 일치 정도, 부부생활(성관계)만족도, 배우자 신뢰도 등도 중-상승유형(유형2)이 고-급격한 하락(유형4), 저-하락(유형3), 저-급격한하락(유형1) 순으로 갈수록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성 본인의 학력이나, 가구균등화소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

17) 유형2의 사례수와 분포를 고려했을 때 사후분석에서는 고-급격한 하락 유형(유형4)의 여성만이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본인의 성역할 태도, 가사노동 지원 여부 등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첫째 자녀 출산 이후 여성의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구소득과 같은 물질적 자원이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여성 자신들의 성역할 태도 보다는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기간 동안 배우자의 무급노동의 참여, 배우자와 소통과 정서적 교류,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 등이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특히 첫째 자녀 출산 이후에 결혼만족도가 상승하여 이후에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중-상승(유형2)의 경우 배우자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배우자 가사노동의 참여도 높고, 배우자와의 소통, 배우자와의 견해의 일치성, 배우자에 대한 신뢰도 모두 높았다는 점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험에 있어 배우자가 얼마나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에 참여하고 배우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는지가 여성의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반대로 첫째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결혼만족도 수준을 보이다 출산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한 저-급격한 하락(유형1)의 여성의 특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들 배우자의 학력 수준이 낮고 이들 여성의 배우자와의 소통 만족도, 견해의 일치 정도, 부부관계 만족도, 배우자에 대한 신뢰도 역시 가장 낮다는 점에서 배우자의 역할이 출산과 자녀 양육기의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표 4〉 유형별 차이 분석

| 변수명 | | 유형1 | | 유형2 | | 유형3 | | 유형4 | | 집단간 차이 |
|--------|-------------|-----|--------|-----|--------|-----|--------|-----|--------|-----------------------|
| 본인 학력 | 고졸 이하 | 26 | 42.62 | 3 | 18.75 | 107 | 34.19 | 30 | 27.52 | $X^2(9)=13.4658$ |
| | 2/3년제 대학 졸업 | 18 | 29.51 | 9 | 56.25 | 89 | 28.43 | 30 | 27.52 | |
| | 4년제 대학 졸업 | 16 | 26.23 | 3 | 18.75 | 109 | 34.82 | 44 | 40.37 | |
| | 대학원 졸업 | 1 | 1.64 | 1 | 6.25 | 8 | 2.56 | 5 | 4.59 | |
| | 합계 | 61 | 100.00 | 16 | 100.00 | 313 | 100.00 | 109 | 100.00 | |
| 배우자 학력 | 고졸 이하 | 22 | 36.07 | 1 | 6.25 | 87 | 27.80 | 28 | 25.69 | $X^2(9)=22.2141^{**}$ |
| | 2/3년제 대학 졸업 | 18 | 29.51 | 2 | 12.50 | 69 | 22.04 | 18 | 16.51 | |
| | 4년제 대학 졸업 | 21 | 34.43 | 10 | 62.50 | 143 | 45.69 | 54 | 49.54 | |

| 변수명 | | 유형1 | | 유형2 | | 유형3 | | 유형4 | | 집단간 차이 |
|------------------------|--------|---------|--------|---------|---------|---------|--------|---------|---------|---------------------------|
| | 대학원 졸업 | 0 | 0.00 | 3 | 18.75 | 14 | 4.47 | 9 | 8.26 | |
| | 합계 | 61 | 100.00 | 16 | 100.00 | 313 | 100.00 | 109 | 100.00 | |
| 본인 성역할 태도 | | 2.28 | 0.23 | 2.31 | 0.22 | 2.28 | 0.27 | 2.28 | 0.24 | F=0.07 |
| 출산 자녀의 수 | | 1.59 | 0.72 | 2.00 | 0.63 | 1.61 | 0.63 | 1.84 | 0.74 | F=5.06** 4)1=2=3 |
| 가구 균등화소득 | | 2303.45 | 803.35 | 2820.89 | 1076.54 | 2489.75 | 949.41 | 2603.27 | 1170.74 | F=1.77 |
| 첫째자녀 출산시 연령 | | 29.56 | 3.73 | 28.31 | 2.65 | 30.48 | 3.95 | 29.61 | 3.92 | F=3.12* |
| 여성노동시간 참여 | | 33.36 | 30.37 | 50.07 | 38.63 | 31.80 | 34.61 | 33.80 | 33.44 | F=1.50 |
|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 여부 | | 9.48 | 18.01 | 15.94 | 27.64 | 8.90 | 20.15 | 10.32 | 23.63 | F=0.64 |
| 배우자 절대적 무급노동 시간 | | 57.10 | 54.89 | 115.27 | 91.97 | 63.45 | 55.36 | 81.31 | 83.51 | F=5.62 *** 2)3=1=4 |
| 배우자 상대적 무급노동 시간 | | 14.79 | 13.10 | 24.63 | 16.09 | 14.57 | 11.69 | 15.68 | 10.79 | F=3.76* 2)1=3=4 |
| 배우자와의 대화 | | 2.64 | 0.41 | 3.47 | 0.30 | 3.09 | 0.33 | 3.31 | 0.30 | F=59.38 *** 2=4)3)1 |
| 배우자와의 견해 일치성 | | 2.54 | 0.43 | 3.27 | 0.27 | 2.91 | 0.37 | 3.08 | 0.34 | F=33.58 *** 2=4)3)1 |
| 부부생활 (성관계) 만족도 | | 2.73 | 0.32 | 3.39 | 0.22 | 3.03 | 0.26 | 3.19 | 0.24 | F=49.29 *** 2)4)3)1 |
| 배우자 신뢰도 | | 2.90 | 0.34 | 3.59 | 0.17 | 3.17 | 0.30 | 3.35 | 0.28 | F=40.44 *** 2)4)3)1 |

주: *p<.05 **p<.01 ***p<.001

3. 유형별 영향 요인: 다항 로지스틱 분석

앞서 살펴본 집단 간 차이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다항 로지스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다. 전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저-완만한 하락

유형(유형3, 59%)을 기준으로 다항로지스틱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저-완만한 하락 유형(유형3, 59%)과 비교할 때 저-급격한 하락 유형(유형1, 13.3%)의 경우, 여성들의 첫째 자녀 출산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방과의 대화가 적다고 판단할수록, 부부관계(성관계)만족도가 낮다고 느끼는 경우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형3과 유형1의 차이가 초기의 결혼만족도 수준은 비슷하나 첫째 자녀 출산 경험이후 결혼만족도가 얼마나 하락시키는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들이 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저-완만한 하락 유형(유형3)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오랜기간 준비한 상태에서의 출산을 경험하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일하게 첫째 출산을 경험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응하는 양상의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에 대한 정서적 만족에서 차이(비교적 유형1보다 더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가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한 배우자와의 소통과 부부 관계는 자녀 출산과 양육기에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저-완만한 하락 유형(유형3) 대비 중-상승 유형(유형2)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학력이 높은 경우, 여성들이 배우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완만한 하락 유형(유형3)보다는 중-상승 유형(유형2)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집단 간 차이에서 중-상승 유형(유형2)의 경우 배우자의 무급노동의 참여가 중요한 영향변수일 것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여성들의 자녀의 수, 여성의 경제활동 기간 등을 통제한 경우 배우자의 무급노동 참여 수준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배우자의 교육수준 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가 매우 높다는 점($p < .001$)은 저-완만한 하락 유형(유형3)과 중-상승 유형(유형2)을 구별하는 주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여성가족패널에서는 배우자의 성역할태도 변수가 없어 이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지만, 배우자의 학력과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가 밀접하다며 배우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성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진다는 기존 연구(김영미·류연규, 2016)를 참고할 때, 비록 배우자의 물리적 무급노동 참여가 아니더라도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무급노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나 반응은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저-완만한 하락 유형(유형3) 대비 고-급격한 하락(유형4)의 경

우 배우자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배우자와 소통이 잘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우, 첫째 자녀를 출산한 해가 빠를수록 저-급격한 하락(유형3)보다는 고-급격한하락(유형4)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격한 하락(유형4)와 저-완만한 하락 유형(유형3)의 결혼만족도의 변화양상에서 유형4가 비록 결혼만족도가 가파르게 하락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하락 이후에도 유형3보다 높게 유지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배우자의 무급노동 참여, 배우자와의 소통과 신뢰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의 주요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기준: 저-완만한 하락 유형((유형3))

| | 저-급격한 하락(유형1) | | 중-상승(유형2) | | 고-급격한 하락(유형4) | |
|------------------|----------------|----------|----------------|---------|----------------|---------|
| | exp(β) | β | exp(β) | β | exp(β) | β |
| 본인 학력 | 1.07 | 0.28 | 0.59 | -1.27 | 1.12 | 0.62 |
| 배우자 학력 | 1.03 | 0.13 | 3.37 | 2.66*** | 0.97 | -0.18 |
| 가구 소득 | 1.00 | 0.32 | 1.00 | -0.73 | 1.00 | 0.27 |
| 본인 성역할태도 | 1.65 | 0.72 | 11.27 | 1.58 | 2.03 | 1.41 |
| 배우자 절대적 무급노동시간 | 1.00 | -0.95 | 1.01 | 1.06 | 1.01 | 1.98* |
| 배우자 상대적 무급노동시간 | 1.03 | 1.37 | 1.03 | 0.77 | 0.97 | -1.51 |
|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 여부 | 1.00 | -0.18 | 1.01 | 0.62 | 1.00 | 0.29 |
| 첫째자녀 출산시 연령 | 0.89 | -2.31* | 0.83 | -1.71 | 0.97 | -0.90 |
| 배우자와의 대화 | 0.09 | -3.71*** | 0.37 | -0.67 | 3.08 | 2.19* |
| 배우자와의 견해 일치성 | 0.55 | -1.05 | 2.48 | 0.96 | 1.30 | 0.62 |
| 부부생활 (성관계) 만족도 | 0.17 | -2.14* | 36.39 | 1.80 | 2.58 | 1.46 |
| 배우자 신뢰도 | 0.48 | -1.02 | 42.23 | 2.50* | 2.99 | 2.13 |
| 첫째자녀 출산연도 | 1.10 | 1.16 | 1.04 | 0.26 | 0.89 | -2.02* |
| 출산 자녀의 수 | 1.07 | 0.25 | 2.31 | 1.65 | 1.43 | 1.79 |
| 여성 경제활동참여 | 1.00 | -0.61 | 1.01 | 0.86 | 1.00 | 0.30 |

| | 저-급격한 하락(유형1) | | 중-상승(유형2) | | 고-급격한 하락(유형4) | |
|-----------------|---------------|---------|---------------|---------|---------------|---------|
| | $\exp(\beta)$ | β | $\exp(\beta)$ | β | $\exp(\beta)$ | β |
| 상수항 | 1.29e-74 | -1.06 | 4.98e-48 | -0.37 | 1.90e+95 | 1.91 |
| 사례수 | 499 | | | | | |
| LR $\chi^2(45)$ | 235.32*** | | | | | |
| Pseudo R2 | 0.2377 | | | | | |
| Log likelihood | -377.38913 | | | | | |

주: * $p < .05$ ** $p < .01$ *** $p < .001$

IV. 연구 함의와 한계

이상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험은 부부 관계에서 추가적인 돌봄의 역할이 부여되는 부모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특히 자녀 양육을 포함한 무급노동의 상당 부분이 여성의 몫이 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하락하고 첫째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점까지 회복되지 않는 양상이며, 일부 소수 여성만이 첫째 자녀 출산 이후에 결혼만족도가 상승하며 이후 하락하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의 차이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은 배우자의 학력과 배우자와의 관계적 측면, 배우자의 무급 노동의 참여,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 연령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나, 이후에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 돌봄의 역할이 더 가중되었는지, 혹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기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는지, 본인과 배우자 외의 돌봄 노동에 대한 조력자가 있었는지보다도 배우자의 학력, 배우자의 관계적 측면 등이 경로의 방향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첫째 자녀 출산 이후 자녀 양육기의 배우자와의 소통과 공감 등 관계적 측면은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자녀 출산과 육아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들이 많아 남성 홀벌이 가구가 많으며 장시간 노동 문화로 인해 실제 배우자가 육아나 가사에 참여할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비록 남성들이 육아와 가사에 물리적으로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무급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소통은 여성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하락의 정도나 만족도의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서적 기제가 된다는 점

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실제 공감과 소통은, 실제 육아에 참여하고 이를 공유할 때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실제로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의 개선과 사회적 문화적 인식의 변화는 실제 상당 부분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저-완만한 하락 유형(유형3)과 중-상승 유형(유형2)의 결과를 볼 때 ‘배우자의 학력’에 따라 여성의 결혼 만족도의 변화 양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배우자의 학력과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의 관계를 살펴본 김영미와 류연규(2016)에서 배우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성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진다는 점을 밝힌 바 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의 배우자가 더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다면 출산과 양육기의 여성들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헤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부부간의 간의 신뢰나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경로의 방향(출산 이후 결혼만족도의 하락 혹은 상승)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기존의 세대 간 이동의 연구에서와 같이 개인의 학력수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부모의 학력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으며 특정 계층의 자녀들이 가정환경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학습함으로써 이러한 태도를 형성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부모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나 부부 상담이 상당 부분 결혼이나 출산 전후 시기의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모 역할이나 성역할 태도에 대한 교육이 단순히 결혼 전이나 후의 시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청소년기부터의 공교육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정한 결혼 전후의 시점이 아닌, 공교육을 통한 이전 시기부터의 학습은 이들의 가정환경이나 학력에 따른 남성들의 성역할 태도의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형화의 개수에 대한 한계이다. 전체 사례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의 3.3%를 차지하며 사례수로는 16사례인 경우를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결혼만족도가 하락하는 양상에서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들의 특성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첫째 자녀 출산 이후의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한 기존의 종단 연구들이 전체적인 양상을 포착하는데 타당했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비록 소수이지만 오히려 첫째 자녀 출산 이후 결혼만족도가 상승하는 소수의 여성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은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적용한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단 간 차이를 보는 것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들을 어느 시점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 집단중심추세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적용한 연구를 참고하여, 로지스틱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어느 시점인지 확인한 경우, 최종 관찰 시점의 값을 포함하거나, 혹은 관찰 기간 전체의 평균값을 사용하거나, 혹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의 값을 포함했는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어느 시점에서의 독립변수의 값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첫째 자녀 출산 이전부터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하는 시점까지 약 10년 정도 되는 전체의 관찰 기간에서 단순히 자녀 출산 이전의 시점을 포함하는 것은 이후의 긴 기간에서의 변동성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관찰 마지막 시점의 값만을 분석에 포함하는 것은 다항 로지스틱 분석이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유형이 되기 위한 시간적 선후에 의한 방향성을 전제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시간의 선후에 위배되기 때문에, 마지막 시점 값만을 포함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체 기간의 평균값을 포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당 변수들의 변화가 결혼만족도의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한계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항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는 각 요인들이 변화양상의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집단중심추세 분석이 아닌, 패널분석 등을 활용한다면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인과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변수에 대한 지적이다. 배우자의 학력이 저-완만한 하락 유형(유형3)과 비교할 때 중-상승 유형(유형2)에 속하게 하는 유의한 변수라는 점을 앞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배우자 학력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학력에 따라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배우자 학력이 이들 부모 세대의 학력과 성장환경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본 연구에서 실제 투입하지 않은 변수이다. 이에 배우자의 학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더불어 여성의 일자리 특성에 대한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지 못한 점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간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였지만, 이들이 어떠한 일자리에서 일한 것인지, 여성들의 소득 수준은 어떠한지, 여성의 소득이 가구 소득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은 여성들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

서도 하나의 협상력을 발휘하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자녀 출산 이후의 결혼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이후 다시 재취업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로 재취업하여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탈과 진입을 반복하는 등 일자리 변동이 있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러한 여성 일자리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어느 시점의 값을 사용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이에 여성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기간을 산출하여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여성들의 임금 수준이나 종사상 지위 등 노동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더불어 이러한 원인이 나타난 경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저-완만한 하락 유형(유형3)과 중-상승 유형(유형2)의 차이에 있어, 배우자의 학력과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경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배우자의 학력이 높은 경우 여성 배우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교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이 부부간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결혼만족도를 높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추후의 연구에서는 경로 분석 등을 통해 각 변수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미령(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제26권. 35-61.
- 김사현·황동진·이민서·김도한(2021). “한국인 복지태도의 변화양상-집단중심 다중궤적모형의 적용”. *사회복지정책*. 제48권 제1호. 5-38.
- 김연하(2016). “한국 아동패널 2008-2012 자료를 활용한 자녀 출산 후 5 년간의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궤적”. *아동학회지*. 제37권 제4호. 47-56.
- 김영미·류연규(2016). “남성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 26개 국가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2호. 271-299.
- 김영희(2005).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요인: 신혼 초와 현재 결혼생활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9호. 41-57.
- 민현주(2012). “자녀출산과 양육시기동안의 여성취업 유형화: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의 적용”. *한국사회학*. 제46권 제2호. 61-87.
- 박은옥(200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7권 제4호. 508-517.
- 서미정(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및 모의 자아인식의 증재효과”. *아동학회지*. 제32권 제6호. 107-121.
- _____(2018). “첫 자녀 출산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경로 및 예측요인”. *육아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31-53.
- 옥선화·고선주(1993).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II:-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제3호. 127-141.
- 이여봉(2010).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제33권 제1호. 103-131.
- 이은희(200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99-118.
- 조성은·정지영·윤소영(2006). “남성의 직장노동과 가사노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1호. 129-140.
- 조보배(2022).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통권 112호. 121-146.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

- tsIdxSearch.do?idx_cd=4226&stts_cd=422601 에서 2022년 7월 25
인 인출.
- 한경미(1995). “기혼취업 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47-57.
- Atchley, R. C.(1992).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Szinovacz, M., D. J.*
- Belsky, J., & Kelly, J.(1994).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New York: Delacorte Press.*
- Belsky, J., Lang, M., & Huston, T. L.(1986). Sex typing and division of labor as determinant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17 - 522.
- Berry, R. E., & Williams, F. L.(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7-116.
- Blood Jr, R. O., & Wolfe, D. M.(1960).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s of family living. *New York: Free Press.*
- Fincham, F. D.(1998). Child development and marital relations. *Child Development*, 69(2), 543-574.
- Hackel, L., & Ruble, D. N.(1992). Changes in the marital relationship after the first baby is born: Predicting the impact of expectancy disconfi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944-957.
- Jones, B. L., Nagin, D. S., & Roeder, K.(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 374-393.
- Kessler, R. C., & McRae Jr, J. A.(1982).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6-227.
- Kluwer, E. S.(2010). From partnership to parenthood: A review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2(2), 105-125.
- LeMasters, E. E.(1957). Parenthood as crisis.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 352-355.

- Nagin, D. S., Jones, B. L., Passos, V. L., & Tremblay, R. E.(2018).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 *Statistical methods in medical research*, 27(7), 2015-2023.
- Petch, J., & Halford, W. K.(2008). Psycho-education to enhance couples' transition to parenthood.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1125-1137.
- Robinson, M., & Neece, C. L.(2015). Marital satisfaction, parental stres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mong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Journal of Mental Health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8(1), 23-46.
- Rollins, B. C. and K. L. Cannon.(1974).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1), 271-282.
- Rollins, B. C., & Feldman, H.(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20-27
- Ruble, D. N., Fleming, A. S., Hackel, L. S., & Stangor, C.(1988). Changes in the marital relationship during the transition to first time motherhood: Effects of violated expectations concerning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78-87.
- Voydanoff, P.(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49-761.

Abstract

**A study on trajectory typology
of women's marital satisfaction
during the first child birth and rearing**

Bobae J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pattern of women's marital satisfaction changes from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to the time when the first child enters school, and to determine which factors are related to the differences in the changes of women's marital satisfaction. Using data from the 1st (2017) to 8th (2020)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499 women's marital satisfactions on 6 times from before the first child birth to 8 or 9 years after the first child's birth were analyzed with a Group-based Trajectory. As a result, changes in women's marital satisfaction ar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patterns. Most of the women's marital satisfaction decreased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and the decline was maintained until the first child entered school. Only 3% of the total women, their marital satisfaction rose rather than before the first child birth and persist a higher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different marital satisfaction changes found the spouse's educational background, spouse's participation in unpaid-work and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communication, trust). It is mentioned the need for education on equal gender roles and marital life from public education in adolescence, and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for men to participate in child-rearing was mentioned.

Keywords : Women's marital satisfaction, First child birth, Typology, Group-based Trajectory,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KLoWF)

* Doctoral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bobaejo@kihasa.re.kr)